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하반기 학술대회 계층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사회의 질

- ◆ 일시 : 2020년 12월 4일 (금), 14:00~18:30
-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건설공학관 107호
- ◆ 주최 :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하반기 학술대회

[세부일정]

▶ 일시 : 2020년 12월 4일 (금), 14:00~18:30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건설공학관 107호

제1부 학술대회 | 계층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질 [14:00-16:50]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14:10~14:20	휴 식	
14:20~14:50	주제발표 1	사회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 발표 : 원지영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 토론 : 박보영 (극동대 사회복지학과) • 사회 : 엄재근 (한국사회적질학회 부회장)
14:50~15:00	휴 식	
15:00~15:30	주제발표 2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의 정서심리 상태 제고를 위한 실천적 접근 • 발표 : 이소윤 (송실대 대학원), 여관현 (안양대 공공행정학과) • 토론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 평생교육원) • 사회 : 엄재근 (한국사회적질학회 부회장)
15:30~15:40	휴 식	
15:40~16:10	자유발표	스웨덴 여성영화인 인권제도에 관한 연구 • 발표 : 홍세영 (안양대 경영행정대학원) • 토론 : 이화선 (서울디지털대 사회복지학과) • 사회 : 엄재근 (한국사회적질학회 부회장)
16:10~16:20	휴 식	
16:20~16:5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6:50-17:40]

• 진행 : 박보영 (한국사회적질학회 연구윤리위원장 겸 편집위원장)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제3부 총회 [17:40-18:30]

• 의장 : 이소영(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 사회 : 박보영(한국사회적질학회 이사)

1. 성원보고_ 이사 박보영
2. 제5차 총회 개회선언_ 의장 이소영
3. 의장 인사말_ 의장 이소영
4. 학회활동 보고_ 이사 박범기
5. 안건 심의 및 의결_ 의장 이소영 / 이사 박범기
 - 제1호 안건 : 제3대 회장선거 결과 추인
 - 제2호 안건 : 차기 임원진 제청 및 승인
 - 제3호 안건 : 2020년 결산보고
 - 제4호 안건 : 2021년 예산보고
 - 제5호 안건 : 기타
6. 기타 안건 토의_ 의장 이소영
7. 폐회선언_ 의장 이소영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웨비나(Webinar)를 병행함.

[목 차]

2020년 하반기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제1부 학술대회 | 계층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질

□ 주제발표 1

사회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7

▶ 발표 : 원지영 (강남대학교)

▶ 토론 : 박보영 (극동대학교)

□ 주제발표 2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의 정서심리 상태 제고를 위한 실천적 접근 19

▶ 발표 : 이소윤 (송실대학교 대학원), 여관현 (안양대학교)

▶ 토론 :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자유발표

스웨덴 여성영화인 인권제도에 관한 연구 45

▶ 발표 : 홍세영 (안양대학교)

▶ 토론 : 이화선 (서울디지털대학교)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61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65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67

제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계층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질

[주제발표 1]

사회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 원지영 (강남대학교)

[주제발표 2]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의 정서심리 상태 제고를 위한 실천적 접근

- 이소윤 (송실대학교 대학원), 여관현 (안양대학교)

[자유발표]

스웨덴 여성영화인 인권제도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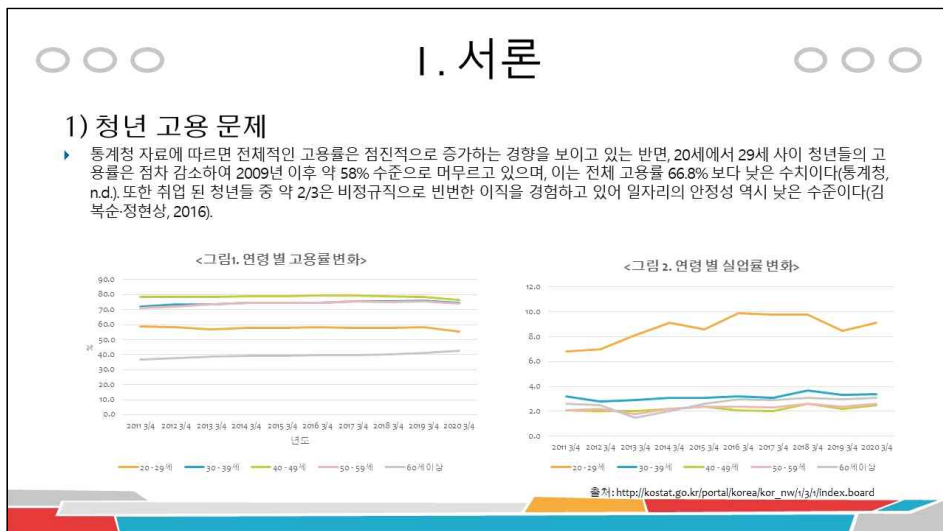
- 홍세영 (안양대학교)

사회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 부모의 학력과 직업·진로교육이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원지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I. 서론



2)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어려움

- ▶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이행은 생애 주기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Schoon & Sibbereisen, 2009).
- ▶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시기, 불안전고용과 실업의 문제는 일자리와 관련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든다(Corcoran & Matsudaira, 2005; Hamilton, 1990; Vuolo, et al., 2015). 뿐만 아니라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무 훈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인적 자본의 축적을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로 개인의 경력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특히,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들은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Osgood et al, 2005).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인초기 노동시장 성과

- ▶ 가정환경은 청년들이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어져 왔다. 중산층 청년들의 경우 우세한 일자리 획득을 위해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기간 동안 가정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반하여 가족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들은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Osgood et al., 2005). 또한 취약계층 가정의 낮은 사회적 자본 수준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 우울감, 낮은 자기효능감 등의 부정적 심리 상태는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적 요인이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면서 점차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임현정 외(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진로 발달은 고등학생 시기와는 달리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보다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과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이론적 배경



2) 진로·직업 교육과 성인초기 노동시장 성과

- ▶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졸 실업자의 증가, 그리고 고등교육이 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 ▶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청년층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Murphy and Welchs, 1989; Rupert, Schweitser, Severance-Lossin and Turner, 1996). 즉, 저학력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 안정성이나 정규직 유지 가능성이 고학력 청년들에 비하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순희 2016), 결과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소득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더 높았다 (Murphy and Welchs, 1989; Rupert, et al, 1996).



II. 이론적 배경



- ▶ 또한, 진로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진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사회적 우려와 청소년기 진로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로발달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성인기 초기 노동시장 성과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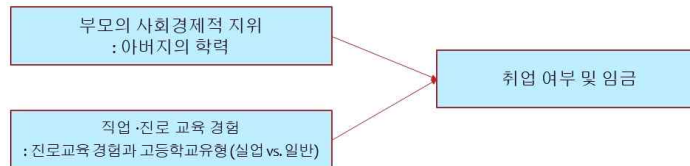
III. 연구의 목적 및 가설



- ▶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기 중등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및 진로 교육 경험이 성인기 초기 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 ▶ 특히 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청년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25세에서 32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제활동 여부와 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를 연령 별로 분석함으로써 가정환경과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진로 교육 경험이 20대에서 30대 초반에 걸친 노동시장 성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의 목적 및 가설



<그림 3. 연구 모형>

○○○

IV. 연구방법

○○○

1) 데이터 및 표본

▶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청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청년패널은 1차 조사 시기인 2007년 현재 15세에서 29세 해당하는 10,206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해마다 이들을 추적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대에서 30대 초반에 걸친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고자 1983년과 1984년 출생한 1,341명을 대상으로 2009년에서 2015년에 걸쳐 7년간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

IV. 연구방법

○○○

2) 측정 도구

변수	측정 방법
부의 학력	▶ 아버지의 학력은 (1)고등학교 미 졸업, (2)고등학교 또는 2-3년제 대학 졸업, (3)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에 활용
직업·진로 교육	▶ 중등교육과정 직업교육 경험은 고등학교 유형을 기준으로 측정.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고등학교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직업 교육 경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 ▶ 전공 선택, 진학, 취업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진로 교육 경험 지표로 활용.
임금	▶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취업자의 경우 25세에서 32세에 해당하는 2009년, 2011년, 2013년과 2015년 시점의 임금 값을 활용. 이 때 모든 임금은 월평균 임금으로 환산하고, 임금 분포의 정규성을 고려하여 자연로그를 이용하여 변환한 값을 분석에 활용.
통제변수	▶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 재학 여부, 자녀 유무 등이 통제변수로 분석 모형에 포함.

○○○

IV. 연구방법

○○○

3) 분석 방법

▶ 유급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부의 학력과 직업·진로교육의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무작위 표본 추출의 가정에 위배되므로 표본선택의 편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Cragg의 이 단계 모형을 사용하여 표본 선택의 편이를 수정하고자 하였다. Cragg의 이 단계 모형은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경제활동 여부를 예측하고 두 번째로 절단 회귀 모형 (truncated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임금 수준의 결정요인을 검증하였다.

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		n	%						
고등학교 유형	일반	1018	77.0						
	실업계	304	23.0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 유형 개수	0	845	63.0						
	1	259	19.3						
	2	175	13.0						
	3 or more	62	4.6						
부의 학력	고졸 미만	275	20.5						
	고졸 또는 전문대졸	763	56.9						
	4년제 대학졸업 이상	302	22.5						
변수	조사 시기	n	%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임금(단위:만원) (n=1,341)	3차(25~26세)	536	40.0	176.16	150.00	175.10	0.00	2,400.00	
	5차(27~28세)	644	48.0	214.13	200.00	189.92	0.00	2,400.00	
	7차(29~30세)	679	50.6	240.80	216.67	183.94	0.00	3,600.00	
	9차(31~32세)	649	48.4	267.14	250.00	145.29	0.00	2,880.00	

V. 연구결과

2. 이 단계 모형 분석 결과

1) 25~26세 시기 취업 여부 및 임금 수준 예측

	3차 조사 시기						
	취업 여부			임금			
	프로빗 회귀 분석			절단 회귀 분석			
	Coef	SE	Z	Coef	SE	t	
상수	0.35	0.10	3.45***	4.99	0.04	112.77***	
성별(0=여성)	-0.62	0.08	-8.06***	0.12	0.04	3.39***	
1차 조사 시기 자녀 유무	-1.13	0.27	-4.19***	-0.06	0.17	-0.38	
3차 조사 시기 학교 재학 여부	-1.63	0.18	-9.11***	-0.15	0.15	-1.01	
고등학교 유형 (0=일반)	0.18	0.09	2.00*	-0.04	0.04	-0.06	
진로교육	0.06	0.04	1.60	-0.01	0.02	-0.41	
부의 학력 (0=고졸 미만)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졸업	-0.23	0.10	-2.32*	0.02	0.04	0.49
	4년제 대학 졸업	-0.28	0.12	-2.37*	0.15	0.06	2.74**
Sigma				0.40	0.01	32.28***	
AIC/Log-Likelihood(df)		1507.4			-265.85(9)		
N				1321			

*p<0.05, **p<0.01, ***p<0.001

V. 연구결과

2) 27~28세 시기 취업 여부 및 임금 수준 예측

	5차 조사 시기						
	취업 여부			임금			
	프로빗 회귀 분석			절단 회귀 모형			
	Coef	SE	Z	Coef	SE	t	
상수	0.14	0.10	1.42	5.16	0.04	123.92***	
성별(0=여성)	-0.09	0.07	-1.23	0.18	0.03	5.88***	
1차 조사 시기 자녀 유무	-1.09	0.28	-3.93***	-0.12	0.18	-0.67	
5차 조사 시기 학교 재학 여부	-0.88	0.17	-5.06***	0.09	0.11	0.83	
고등학교 유형 (0=일반)	0.08	0.09	0.97	-0.12	0.04	-3.08**	
진로교육	0.04	0.04	1.01	-0.00	0.02	-0.13	
부의 학력 (0=고졸 미만)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졸업	-0.16	0.09	-1.72	0.01	0.04	0.27
	4년제 대학 졸업	-0.13	0.11	-1.22	0.11	0.05	2.20*
Sigma				0.39	0.01	35.55***	
AIC/Log-Likelihood(df)		1794			-297.51(9)		
N				1321			

*p<0.05, **p<0.01, ***p<0.001



V. 연구결과



3) 29~30세 시기 취업 여부 및 임금 수준 예측

	7차 조사 시기						
	취업 여부			임금			
	프로빗 회귀분석			절단 회귀 모형			
	Coef	SE	Z	Coef	SE	t	
상수	-0.14	0.10	-1.44	5.29	0.04	134.59***	
성별 (0=여성)	0.22	0.07	3.19**	0.21	0.03	7.55***	
1차 조사 시기 자녀 유무	-1.29	0.32	-4.05***	0.05	0.21	0.20	
7차 조사 시기 학교 재학 여부	-1.09	0.30	-3.67***	0.25	0.18	1.40	
고등학교 유형 (0=일반)	0.01	0.09	0.17	-0.13	0.03	-3.96**	
진료교육	-0.03	0.04	-0.89	-0.00	0.01	-0.31	
부의 학력 (0=고졸 미만)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졸업	0.12	0.09	1.32	0.01	0.04	0.18
	4년제 대학 졸업	0.07	0.11	0.65	0.06	0.04	1.39
Sigma	-	-	-	0.35	0.01	36.50***	
AIC / Log-Likelihood(df)	1794.4			-253.98(9)			
N	1321						

*p<0.05, **p<0.01, ***p<0.001



V. 연구결과



4) 31~32세 시기 취업 여부 및 임금 수준 예측

	9차 조사 시기						
	취업 여부			임금			
	프로빗 회귀분석			절단 회귀 모형			
	Coef	SE	Z	Coef	SE	t	
상수	-0.19	0.10	-2.00*	5.34	0.04	134.76***	
성별 (0=여성)	0.35	0.07	5.03***	0.27	0.03	9.43***	
1차 조사 시기 자녀 유무	-0.84	0.28	-3.02**	0.03	0.16	0.21	
9차 조사 시기 학교 재학 여부	-0.39	0.27	-1.41	-0.16	0.12	-1.30	
고등학교 유형 (0=일반)	-0.01	0.09	-0.09	-0.19	0.03	-5.46***	
진료교육	-0.05	0.04	-1.26	0.00	0.02	0.20	
부의 학력 (0=고졸 미만)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졸업	-0.00	0.09	-0.00	0.04	0.04	1.08
	4년제 대학 졸업	-0.00	0.11	-0.02	0.11	0.04	2.54*
Sigma	-	-	-	0.35	0.01	35.61***	
AIC / Log-Likelihood(df)	1802			-226.99(9)			
N	1321						

*p<0.05, **p<0.01, ***p<0.001



V. 연구결과



3. 연구결과 요약

- ▶ 자녀가 20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까지는 아버지의 높은 학력이 오히려 청년 자녀들의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취업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임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적 상관관계는 자녀가 30대에 진입한 이후까지도 유효하였다.
- ▶ 본 연구의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노동시장 진입의 시기는 빠르지만, 이처럼 이른 노동시장 진입이 이후 임금 수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20대 중반까지 청년들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그러나 20대 후반에 이르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간의 취업률 격차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이들 간의 임금 격차는 유의한 수준으로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 ▶ 성별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진입 이후까지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20대 중반까지는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높았던 반면, 20대 후반에 이르면서 남성의 취업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인이 되기 전반에 걸쳐 남성의 임금 수준은 여성 보다 높았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제언



- ▶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 자녀의 성인이 초기 일자리로의 진입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산층 청년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러한 전략은 보다 나은 일자리 획득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취업 시기를 지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력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
- ▶ 둘째, 청년실업자 중 대학교 졸업자의 높은 비율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형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진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들 보다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취업하도록 요구되고, 따라서 대학 진학 가능성이 낮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결국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VI. 결론 및 제언



- ▶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성인이 초기 취업 여부 및 임금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로교육이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김기현 외, 2014; 김효선·양승호, 2012)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임금의 격차는 성인이 초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인이 초기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성차별의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 ▶ 연구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1984년과 1985년생 청년들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고, 따라서 이들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진로 교육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시점에 선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등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체험 중심 진로교육의 장기적 효과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임금과 같은 경제적 보상 측면 뿐 아니라 업무의 자율성, 고용안정성 등의 비금전적 측면과 당사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고려한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순희(2016). 취약청년의 초기 일자리 변동과 고용안정성. *한국청소년연구*, 27(4), 5-29.

김복순·정현상(2016).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월간노동리뷰*, 1월호, 91-108

임현정·김양분·김난옥(2015). 대학 입학전후 진로성숙 변화의 영향요인 탐색.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8(3), 27-56.

통계청 (연도미상).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index-go-kr.nciashield.org/unify/idx-info.do?idxCd=4212> 로부터 인출

Corcoran, M. & Matsudaira, J. (2005). Is it getting harder to get ahead? Economic attainment in early adulthood for two cohorts. In R. A. Settersten, Jr., F. F. Furstenberg, Jr. & R. G. Rumbaut (Eds.),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pp.356-395).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milton, S. F. (1990). *Apprenticeship for Adulthood: Preparing Youth for the Future*. New York, NY: Free Press.

Murphy, K. M. & Welch, F. (1989). Wage premia for college graduates: Recent growth and possible explanation. *Educational Researcher*, 18(4), 17-26.

Osgood, D. W., Foster, E. M., Flanagan, C. & Ruth, G. R. (2005). *On Your Own without a Net*.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upert, P., Schweitzer, M., Severance-Lossin, E. & Turner, E. (1996). Earnings, education, and experience. *Economic Review Q*, 14, 2-12.

Schoon, I. & Sibberesen, R. K. (Eds.). (2009). *Transitions from School to Work: Globalisation, Individualisation, and Patterns of Diversit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Vuolo, M., Mortimer, J. T. & Staff, J. (2013). Adolescent Precursors of Pathways from School to Work.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4(1), 145-162.

[토론문]

「사회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에 대한 토론

박보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과 미국의 2020년 대선을 계기로 사회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갈등이 커다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양자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회역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의 관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양자는 모두 불평등과 재분배의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한 정치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공공의료 및 사회안전망의 축소를 방조한 정치는 팬데믹 국면을 더욱 심화시켰고, 부의 재분배 문제를 등한시한 정치는 몰락한 중산층과 소외된 이들의 조직된 분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의 실패와 시스템의 위기는 노동시장, 특히 청년 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청년 노동시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이며, 이로 인한 구조적 모순이 응축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노동시장에서는 매우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불평등의 세대간 재생산’ 이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청년들의 취업경쟁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회·문화·경제 자본에 따라 상당 정도 좌우됩니다.

그럼에도 청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격차가 마치 ‘공정’ 한 것인 양 인식되고 포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니엘 마코비츠(Daniel Markovits)는 <엘리트 세습>(The Meritocracy Trap)에서 “현실에서 능력은 만들어지고 세습되고 있으며, 능력주의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막대한 교육투자로 인적자본을 대물림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에게만 득이 되고 있다” 고 지적합니다. 그는 “과거의 ‘귀족 세습’ (Aristocracy)이 현대에 와서 ‘엘리트 세습’ (Meritocracy)으로 이어지고 있다” 는 말로 간명하게 정리합니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역시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에서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라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더 정확히는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는가?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고학력 엘리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 오롯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고 지적합니다. 그는 ‘기회’란 고학력 엘리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며, 이 점을 일반 대중(유권자들)이 경험을 통해 깨닫기 시작했다고 지적합니다.

요컨대, 대니얼 마코비츠와 마이클 샌델은 공히 모두 “공정으로 포장된 능력주의가 정말 공정한가”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는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기회, 행운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행운’이 중요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느냐, 흙수저로 태어나느냐에 따라 환경과 기회는 천양지차이기 때문입니다.

2.

이런 맥락에서 ‘부모학력(아버지 학력)과 직업·진로교육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이 논문의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금의 상황과 화두에 비춰봤을 때 대단히 시의성이 큰 연구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관념, 경험칙을 실증적 데이터로 검증한 것이 이 논문의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했으면 바람입니다.

첫째, 문제의식 및 주제의식을 보다 친절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2가지 독립변수(아버지 학력, 직업·진로교육 경험)가 성인기 초기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2가지 독립변수를 동시에 다루는지 그 이유를 보다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가지 질문일 수도 있으나, 왜 아버지 학력만 변수로 다루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즉 어머니 학력은 왜 변수로 다루지 않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둘째, 서론과 결론을 보면, 논문의 논의 수준이 미시적인 데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토론자가 보기에 이 논문의 논의 수준은 최소 중범위 수준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토론문의 머리글이 시사하듯, 이 논문의 주제의식은 결국 한국사회의 사회이동(계층이동) 문제에 가닿습니다. 만일 논문의 연구결과를 계층이동 및 불평등 이슈와 연관시켜 논의한다면, 아마도 이 논문의 학술적·실천적 가치는 한층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즉 논의의 수준을 보다 확장시켜 ‘닫힌 사회’로 가고 있는—이미 ‘닫힌 사회’로 가버렸는지도 모르는—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랍니다. (※ 토론자의 제언과 관련해서는 신명호의 <왜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를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셋째, 지엽적인 문제지만 VI장의 제목을 ‘결론 및 제언’ 이 아닌 ‘결론 및 함의’ 로 변경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론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은 제언(suggestions)이라기보다는 함의(implications)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의 정서심리 상태 제고를 위한 실천적 접근

: 원예활동이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이소윤* · 여관현**

I. 서론

최근 UN을 비롯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미래인류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의 핵심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인류의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대처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유래 없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단계적 정년연장 로드맵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기획재정부, 2019). 국내의 노인 인구는 UN이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2%를 이미 상회 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고령자 비율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 또한, 2026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전체인구의 20%, 2050년에는 38%까지 증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통계청, 2019).

한편, 보건복지부(2017)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수는 251만 명에 이르며, 그중 지체장애인이 126만 명으로 48.6%를 보이고 있다. 뇌병변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각각 약 28만 명 수준으로 약 11% 수준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 등 외형적으로 장애가 뚜렷한 장애는 외부의 관심이나 노인복지 지원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청각장애는 장애 정도가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으로 비장애인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다. 즉, 청각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등이 제한적이며, 사회성 측면에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특히, 청각장애인 28만여 명 중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motelkh@anyang.ac.kr

60세 이상의 노인이 22만 명(약 80%)을 상회 한다.

이러한 국내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청각장애 노인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더불어 청각장애라는 이중적 고통을 겪는 청각장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가 실천되는 현장에서는 각종 장애 유형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장애 치유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장애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예방적 혹은 치유적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청각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기법 등을 살펴보면,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치료, 원예활동 등 청각장애 노인들의 다양한 치유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임홍수, 2017). 특히, 청각장애 노인들의 장애치유 프로그램 중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손으로 만지고 생각하는 오감을 사용하여 치유하는 기법이다. 즉,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은 식물을 매개로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여 심신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삶의 쾌적성 및 환경 회복과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게 된다(이남숙, 2008).

그러나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원예활동이 그들의 개인별 심리 변화에 적용되는 기존 연구는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원예활동을 통한 자아존중감 증진 및 그 효과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청각장애 노인은 신체상 제한으로 구직이 제한적이며, 수입이 거의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노인은 사회적 소통 단절과 고립으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그들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청각장애 노인시설 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의 사전 및 사후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 증진과 그들의 우울감 완화 및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감, 사회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감(depression)은 생물학적, 유전적, 사회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우울감은 기분장애의 일종으로 우울한 기분, 의욕, 관심, 정신 활동의 저하 초조와 변민, 식욕저하, 불면증, 슬픔, 불안 등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변화가 생겨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병으로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발병하고 있다.¹⁾ 한국의 우울감 발생률은 2006년 통계로 남성이 11.3%와 여성이 19.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우울감을 느낄 위험이 1.86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울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발생비율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Weissman, 1985).

우울감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물학적 요인은 유전적 요인을 비롯하여 해부학적 이상, 신경내분비 이상, 신경면역장애 등이 해당된다. 또한, 사회심리적 요인에는 환경요인을 비롯하여 생활사적 요인, 정신분석 및 정신역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좌절 반복 학습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울감의 주요 증상에는 정서적 증상, 심리적 증상, 정신운동성 증상, 집중력 저하, 피로감, 체중감소 등이며, 다양한 신체적 변화로는 두통, 요통, 근육통, 이명, 호흡곤란, 소화불량, 변비 등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감은 신체적 능력저하,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두려움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신체적 어려움의 호소와 함께 치매와 같은 기억력 저하, 행동의 위축, 자살 위험성 증가 및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감 예방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및 주변의 관심과 이해를 통한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행복감’의 판단으로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그들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현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경제 지표나 수명 등 개인이나 집단을 둘러싼 삶의 객관적인 조건뿐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안녕, 복지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인 행복감, 안녕감, 만족감, 좌절감, 실망감 등을 의미한다. Neugarten(1961)은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생활지표를 개발한 이후 생활만족도 개념이 일반화되기에 이른다. 그 이후 생활만족도는 인간의 욕구 또는 행복감과 혼용되어 사용되다가 George(1979)는 생활만족도를 사기나 행복감과는 별개로 구분하게 되었다.

또한, Graney(1975)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생활만족의 주체인 저소득층 노인이 갖는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 또는 태도로 보았다. Kalish(1975)는 생활만족도를 첫째,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는 정도 둘

1) 우울감이 심각하게 발전한 경우, ‘주요 우울장애’로 분류되는 정신장애로 진단하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과 더불어 ‘주요 우울장애’를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국가건강정보포털, <https://health.cdc.go.kr>).

째,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여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효재 외(1979)는 생활만족도를 일상생활에서 기쁨을 얻고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주요한 목표의 성취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최혜경(1985)은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에서의 만족감으로 개인의 심리적·환경적 요인은 물론, 생활 전반을 통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저소득층 노인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과거 삶을 비롯하여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만족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존감(self-esteem)은 개인의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현상이다. 자존감의 용어는 한 개인에 대한 가치관은 가정된 잠재력에 실제 얻게 되는 성취의 비율로 결정된다고 본 William(1890)이 처음 사용하였다. Rosenberg(1965)는 자아의 다양한 요소들이 나름의 원리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이루며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연관되는 조직으로서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총체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Coopersmith(1967)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 가는 평가적 차원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가치 등에 대하여 스스로 믿는 정도로 보았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자존감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저소득층 노인의 성공적 인생에서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노년기는 사회적 지위,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역할상실 등의 문제로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절망감을 느끼게 하며, 심지어는 신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죽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Minkler, 1989).

Kuhlen(1984)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관한 연구에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불행스러운 측면은 나이가 들수록 자아개념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보았다. 유수정 외(2002)는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낮아지며, 건강상태, 삶의 질, 생활만족도 등이 높을수록 자존감도 높아진다고 보았다. 또한, 황찬구(1988)는 자존감을 일반적인 자아상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자존감으로, 친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보는 관념체계인 사회적 자존감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개인이 자신의 성격, 능력,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두는 주관적인 자기 평가로서, 주변 인물과 환경과의 경험, 실제적 성취와 연관되는 종합적인 자아평가로 정의하려 한다.

2. 저소득층 노인의 원예활동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이론에는 활동이론, 자원이론, 분리이론, 교환이론, 하

위문화이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을 탐색하기 위한 관련 이론으로는 활동이론이 있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Havighurst(1949)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되었으며, 1972년 Lemon에 의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입각한 이론으로 공식화 된다(Cavan et al., 1949). 활동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저소득층 노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 개인에 의한 분리이론이나, 사회적 분리이론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즉, 저소득층 노인은 생리적 노화나 건강문제를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활동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또한, 그들의 역할상실 및 활동 반경의 축소 등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활동들을 탐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저소득층 노인의 대체활동에 대한 몰입을 통해 노년기의 역할상실 및 고독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타인과의 교체와 집단 활동의 욕구는 지속되며, 이러한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이러한 욕구는 퇴직, 경제적 어려움, 역할과 지위 상실, 건강상태 저하 등으로 억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저소득층 노인의 욕구 불충족은 자아정체성 약화와 자아평가에 대한 위기 초래 및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사회적 만족감은 감소시킨다(Leont'ev, 1972). 즉,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활동은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 자아상이 유지되고 긍정적 자아유지를 통해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이처럼 활동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들은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청각장애와 고령이라는 건강상의 한계 등으로 자신의 욕구가 아닌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고립된 삶을 영위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이 노후에 자신들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activity)이 필요하다. 그 활동이론의 구체적 실행으로서 원예 활동은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적절한 심리적, 도구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게 된다(Rose, 1965). 활동이론이 원예활동 및 원예복지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노인이 활동적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자아개념, 사회적 적응력이 증가되므로 연령과 건강상태에 기반한 노인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등은 노년기의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개발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원예활동은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혜택과 사회통합의 기회를 갖기 위해 전문적인 원예치료사에 의해 다양한 치유적 의도와 재활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원예활동을 통해서 활동이론이 주장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욕구를 실현하여 노년기의 자존감, 성취감, 생의 의욕을 고취 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Cumming & Henri, 1961).

3. 선행연구 검토

원예활동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 여러 서비스 범주에 걸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하나로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치매치료, 재활, 여가프로그램 등에서 그 효과성이나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2000년대 들어서 시도되고 있다. 우선, 원예활동이나 우울감에 관한 선행연구 중 일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 및 치매 노인의 우울감 개선에 대한 원예활동의 효과성을 연구한 시도가 있다(김희성 외, 2003; 송미진, 2009; 정효영, 2009). 이들 연구는 대체로 원예활동 프로그램 모형이나 원예요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인지, 정서, 의사소통 및 문제행동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원예활동이 시설 거주 노인들의 우울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원예활동이 노인요양원 거주 입소 노인들의 우울감 등 정신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한나 외, 2015 ; 임홍수 외, 2016).

이들 선행연구는 원예활동을 활용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감이나 인지기능 향상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예활동이 치매 노인의 우울 정도 감소, 인지도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자아존중감과 감정균형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능의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황인옥 2002). 각종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치매 노인의 정서적인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중재적 프로그램이며, 우울감 감소는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김한나 외, 2015). 또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원예프로그램은 치매의 단계나 종류에 따라 토양이나 식물, 또는 기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재료를 분별없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이 있거나 가시 등은 피하고 무균토양(인공토양)을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감 해소에 원예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경제적 상실감을 주는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다(이익섭 외, 2005; 임홍수, 2017). 분석결과, 향후 다양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단기성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말고 장기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예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정재은 외, 2001; 김원배, 2010; 이은숙, 2004; 정수찬, 2006; 박근수 외, 2010). 박근수 외(2010)는 농촌 노인들에게는 원예활동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원예활동 프로그램 전, 후의 생활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연구결과, 다양한 원예 관련 변인과 노인의 여가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노인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중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에게서 증가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이현심 외, 2010; 오창섭·정원길, 2009; 권양순 외, 2010).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족 형태, 건강상태, 경제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권양순 외, 2010; 이현 외, 2010).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건강상태, 생활수준, 교육수준, 과거 직업, 여가활동, 종교, 가정 내 역할, 사회심리적 특성 등의 변수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권중돈 외, 2000).

청각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들은 시도되고 있으나(이영진, 2008; 오창섭·정원길, 2009; 임홍수 외, 2016), 원예활동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하였다. 특히, 고령사회를 맞아 중첩된 고통을 겪는 대상임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복지실태 및 생활만족도 등 복지 욕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들은 대부분 청각장애 노인들의 복지 욕구는 청각장애 발생 시기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직업 재할 및 복지 욕구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홍수 외(2016)는 원예활동이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원예활동이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등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주간보호센터 등의 이용자에게 원예활동의 적극적으로 활용을 제안하였다.

임홍수 외(2016)의 연구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동일지역 거주 단일 표본 집단에게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사전 사후 실시하고 그 영향을 측정하였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원예활동 효과성 검증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나, 그 대상을 단일집단이 아닌 2개 지역에 거주하는 2개의 표본과 일반 청각장애 노인이 아닌 저소득층이 대상인 점에서 본 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밖에도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정선희 외, 2006; 오창섭·정원길, 2009; 권양순 외, 2010).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족형태,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의 차이를 증명하였다.

상기와 같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기존 연구는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원예활동을 통한 자아존중감 증진 및 그 효과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노인은 사회적 소통 단절과 고립으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으로 생활환경이 어렵고 생활만족도가 낮으며, 자아존중감, 죽음 불안, 자살 생각 등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원예활동이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그들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하는 청각장애 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원예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대상자별 원예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과 이후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의 변화 유무를 검증할 수 있는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자료조사는 같은 문항의 설문지를 사전과 사후 2회 측정하였으며,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각각의 하위요인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표본 집단의 3개 종속변수 범주별로 원예활동의 사전, 사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PSS Statistics 18버전을 사용하였다.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그들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 대상자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청각장애 전문 이용시설인 'A'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중인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 12명과 수도권 소재 한국농아인협회 'B' 주간보호실을 이용 중인 청각장애 노인 20명 등 총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의 청각장애 노인 중 차상 위 이상의 계층과 대상자 중 그동안 원예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은 설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조사 표본이 32명으로 제한된 이유는 원예활동의 특성상, 수어 통역사, 기관종사자, 자원봉사자의 협업을 통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자 1인이 수용 가능한 표본은 1팀당 10명~15명으로 한정되어 진행하였다. 현재 노인의 법률적 기준은 65세 이상이지만, 청각장애 노인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 추천을 고려하여 설문 대상자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인 3명을 포함하였다. 또한, 통계청 등의 관계부처에서 장애유형별 인구 통계 시 60세~70세 등 10년 단위로 연령 구간을 설정하는 측면도 고려하였다.

〈표 1〉 원예활동 프로그램 주요내용

번호	일시	프로그램 명	목표
1	2019.7.16	자기소개, 원예수업 내용설명 실기: 절화, 꽃바구니장식	자신에 대한 의미부여, 후각자극, 심리적 안정을 도모
2	2019.7.19	실기:식물심기 (벵갈고무나무)	공기정화 식물의 효과성과 생명의 번식을 눈으로 확인
3	2019.7.23	실기:식물심기 (파퀴라)	시각의 자극과 식물과의 교감. 성취감 자극
4	2019.7.30	실기:테리리움(빅토리아,아레카야자,레드스타)	색감의 자극과 창의력과 집중력 소근육 운동
5	2019.8.2	실기: 수정식물 (개운죽,맥반석)	식물의 성장과 인간의 생장의 공통점을 익히고 협응력을 향상
6	2019.8.6	실기:행복액자 (프리저버드) 작품발표	인지능력과 인내심과 창의력 증가. 기억력 자극. 상호작용 증대
7	2019.8.9	실기:서양난장 (비바체)	시각의 자극과 다양한 식물을 익히며 인지 자극
8	2019.8.13	실기:석부작 (풍란)	손근육 향상과 협응력 기르기
9	2019.8.16	실기:사랑의액자 스칸디아모스 작품발표	협동력 배양. 창의력 증대, 자신감 증대
10	2019.8.20	실기:식물심기, 그림그리기	시각의 자극 및 기억력 자극,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2019년 6월부터 동년 8월까지 3개월간 주 1회 총 10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표 1〉 참조).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각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대상자들로부터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참가 동의서를 수령 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기관종사자, 수어 통역사,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매회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았다.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각 해당 주차의 목표를 정하였으며, 원예활동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 대상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상태를 고려하여 위험한 도구나 재료의 사용을 자제와 실내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원예활동 프로그램 내용은 실험 대상자들이 직접 원예 식물을 화분에 심고 흙과 거름을 주어 성장 과정을 돌보게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다. 또한, 자기표현의 창조적 기회를 주고자 꽃꽂이 작품을 만들어 결과물에 대한 느낌을 발표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였다. 원예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공동작업을 통해 대인관계를 넓히고 사회성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본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심리적으로 평안히 진행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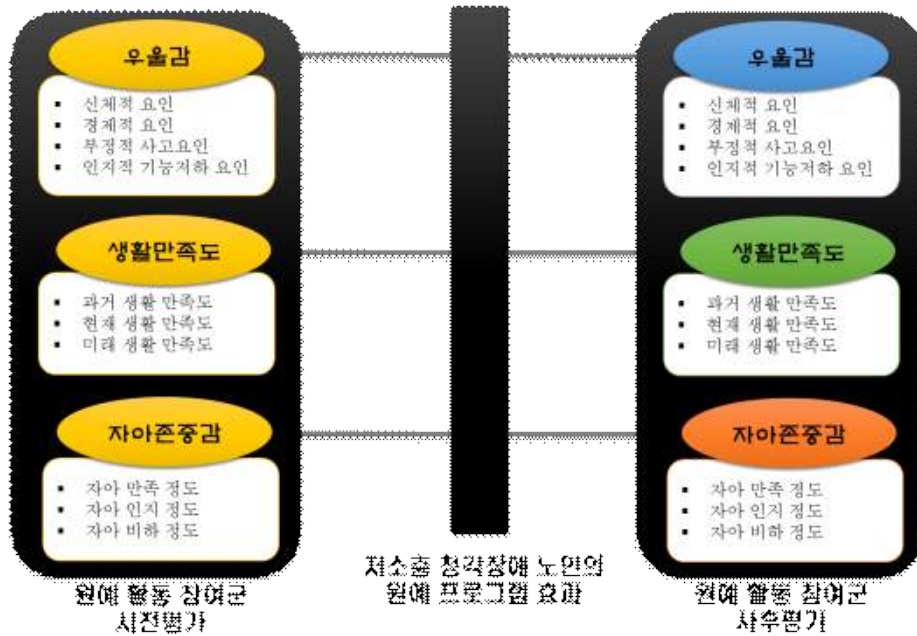
2. 연구모형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게슈탈트(gestalt)²⁾의 그룹 활동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분석의 정확도를 위해 각 팀은 3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원예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모집은 대상 시설의 원예활동 프로그램 공고를 원칙으로 하였고, 일부 시설 종사자들의 협조를 통해 임의, 편의 표집방법을 적용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그들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우울감이 감소한다. 둘째, [가설 2]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 셋째, [가설 3]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는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의 크기를 측정해 우울감은 ‘한국형 노인 우울 척도(KDGS; 정인파, 1997)’, 생활만족도는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최성재, 1986)’,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 검사지’ 등의 측정 척도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의 측정척도에 하위요인들을 구성하고 각각의 하위요인별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하위요인별 세분화된 분석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측정 척도 및 세분화된 하위요인별 구성요소 등을 종합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척도 및 하위요인 구성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수준을 측정하고 원예활동을 통해 사후 우울 증상의 변화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형 노인우울척도(KGDS: 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Yesavage가 1983년 개발한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우리나라 노인에게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정인파 외(1987)가 표준화한 것이다. 한국형 노인우울척도(KGDS)는 이해하기 쉬운 30개의 설문 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 신체적 악화 및 건강염려 증가요인, 정서적 불편감 요인, 비관적 사고 및 불행감 요인, 인지기능 저하요인, 사회적 철수 및 활동감소 요인으로 세분화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한 문항들을 재분류하여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 부정적 사고요인, 인지적 기능저하 요인 등 4개 부문으로 재구성하였다.

2) 게슈탈트(gestalt)는 ‘한 개체를 통합된 상호연관성이 있는 전체로 파악’ 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대상자 집단인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을 고유한 특성을 갖는 각 구성 요소들을 목적으로 통합한 상태로 조직화 하였다. 게슈탈트의 개념은 인간이 경험을 중시하는 유기체로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통해 내외적으로 야기되는 사건과 접촉으로 살아가며, 그 현상에 대한 자각과 수용을 인지기능의 신뢰 기반으로 삼는 심리학적 특성을 의미한다(쿠북, 2017).



〈그림 1〉 연구모형

둘째, 생활만족도 측정의 기준은 최성재(1986)가 개발한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성재의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한국 노인복지 분야의 일반적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본 척도는 노인생활 만족을 일상생활의 활동 결과에 기초한 동적인 측면과 노인의 생활에 대한 가치인식에 기초한 정적인 측면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과거 삶과 활동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망에 대한 만족도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20개의 설문 문항으로 생활만족도를 일상생활의 동적인 측면과 노인생활에 대한 가치 인식의 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과거 및 현재의 삶과 미래 활동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 인지와 부정적 인지의 3개 하위요인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변화의 측정지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개의 설문문항과 함께 자아만족정도, 자아인지정도, 자아비하정도 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아만족도 요인은 자기 자신의 외모, 성격, 대인관계 등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자아인지 정도는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자아비하 정도는 자아인지정도 문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자신을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이다.

IV. 분석 결과

1. 원예활동이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

여기서는 원예활동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의 우울감과 관련된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 부정적 사고요인, 인지적 기능저하 요인 등 4가지 하위요소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 분석을 시행하였다.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여 후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에 대한 평균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과 같이 요약된다. 원예활동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우울감 크기는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전에는 우울감 평균이 11.88 이었으나,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는 7.13으로 우울감이 감소하고 있다.

원예프로그램 참여 후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 분석한 결과,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3.822/p<.001$). 따라서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우울감이 감소한다.” 로 설정된 [귀무가설 1]은 수용(accept)되어 진다. 즉,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우울감이 감소한다.” 는 것으로 가설검증을 통해서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표 2> 참조).

<표 2> 우울감 대응표본 T-검정 (통계량 및 분석결과)

구분(통계량)		Mean	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우울감	사전	11.88	32	7.339	1.297			
	사후	7.13	32	4.784	.846			
구분 (분석결과)	Paired Differences				t	df	p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우울감_사전	4.750	7.030	1.243	2.215	7.285	3.822***	31	.001
우울감_사후								

*p<.05, **p<.01, ***p<.001

한편,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의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집단별 우울감의 하위영역을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 부정적 사고 요인, 인지적 기능저하 요인 등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전, 사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요약된다. 원예활동 프

로그래 실시 전과 후의 우울감 하위영역별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전에는 신체적 요인의 평균값이 3.38 이었으나,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는 2.00 으로 신체적 요인의 평균값이 감소하였다. 정서적 요인은 평균값이 2.53 이었으나,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는 1.59로 정서적 요인의 평균값이 감소하였다. 또한 부정적 사고 요인의 평균값이 2.84 이었으나,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는 1.88로 부정적 사고요인의 평균값이 감소하였다. 인지적 기능저하 요인은 평균값이 3.13 이었으나, 원예활동 프로그램 이후에는 1.81로 인지적 기능저하 요인의 평균값이 감소하였다.

또한, 원예프로그램 참여 후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의 하위영역을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 부정적 사고요인, 인지적 기능저하 요인 등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전사후 평균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분석결과, 원예프로그램을 참여한 이전과 이후의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 부정적 사고요인, 인지적 기능저하 요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우울감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요인($t=3.566, p<.001$), 정서적 요인($t=3.067, p<.01$), 부정적 사고 요인($t=3.259, p<.01$), 인지적 기능저하 요인($t=3.259, p<.01$) 등에서 모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대응표본 T-검정 분석결과 확인하였다. 따라서 약 3개월 진행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4개의 하위요인에도 우울감 감소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표 3〉 우울감 하위요인별 대응표본 T-검정 (통계량 및 분석결과)

구 분 (통계량)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신체적 요인	사전	3.38	32	2.012	.356			
	사후	2.00	32	1.646	.291			
정서적 요인	사전	2.53	32	1.565	.277			
	사후	1.59	32	1.103	.195			
부정적 사고요인	사전	2.84	32	1.969	.348			
	사후	1.88	32	1.238	.219			
인지적 기능저하 요인	사전	3.13	32	2.420	.428			
	사후	1.81	32	1.712	.303			
구 분 (분석결과)	대응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신체적 요인	1.375	2.181	.386	.589	2.161	3.566***	31	.001
정서적 요인	.938	1.645	.291	.344	1.531	3.224**	31	.003
부정적 사고요인	.969	1.787	.316	.325	1.613	3.067**	31	.004
인지적 기능저하요인	1.313	2.278	.403	.491	2.134	3.259**	31	.003

* $p<.05$, ** $p<.01$, *** $p<.001$

2. 원예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여기서는 원예활동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등 3가지의 하위요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 분석을 하였다.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여 후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생활만족도 평균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원예활동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생활만족도 크기는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전에는 생활만족도 평균이 60.88이었으나,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는 71.53으로 생활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원예프로그램 참여 후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생활만족도 사전 사후 평균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 분석한 결과,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표 4> 참조). 따라서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로 설정된 [귀무가설 2은 수용(accept)되어 진다. 즉,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통계적인 가설검증을 통해서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약 3개월 간 진행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생활만족도 대응표본 T-검정 (통계량 및 분석결과)

구 분 (통계량)		Mean	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생활만족도	사전	60.88	32	10.285	1.818			
	사후	71.53	32	7.771	1.374			
구 분 (분석결과)	Paired Differences					t	df	p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생활만족도_사전	-10.656	8.217	1.453	-13.619	-7.694	-7.336***	31	.000
생활만족도_사후								

*p<.05, **p<.01, ***p<.001

한편,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등 3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전과 후의 생활만족도 하위역영별 크기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생활만족도 크기는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전에는 과거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이 17.69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는 21.28로 과거생활만족도 측면의 평균값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생활만족도는 평균값이 24.53이었으나,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는

28.66으로 현재생활만족도의 평균값도 증가하였다. 미래생활만족도는 평균값이 18.66로 나타났으나, 원예활동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는 21.59로 미래생활만족도 측면의 평균값도 증가되었다.

그리고 원예프로그램 참여 후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등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해 사전사후 평균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예프로그램을 참여한 이전과 이후 과거생활만족도 ($t=-7.404/p<.001$), 현재생활만족도($t=-5.532/p<.001$), 미래생활만족도($t=-4.259/p<.001$) 등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5〉 참조). 즉,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소인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모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약 3개월 간 진행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해당되는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등 3가지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증가하게 된다.

〈표 5〉 생활만족도 하위요인별 대응표본 T-검정 (통계량 및 분석결과)

구 분 (통계량)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과거생활 만족도	사전	17.69	32	3.105	.549			
	사후	21.28	32	2.479	.438			
현재생활 만족도	사전	24.53	32	5.322	.941			
	사후	28.66	32	4.440	.785			
미래생활 만족도	사전	18.66	32	4.674	.826			
	사후	21.59	32	3.509	.620			
구 분 (분석결과)	대응차					t	자유 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과거생활 만족도	-3.594	2.746	.485	-4.584	-2.604	-7.404***	31	.000
현재생활 만족도	-4.125	4.218	.746	-5.646	-2.604	-5.532***	31	.000
미래생활 만족도	-2.938	3.902	.690	-4.344	-1.531	-4.259***	31	.000

*p<.05, **p<.01, ***p<.001

3. 원예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여기서는 원예활동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만족정도, 자아인지정도, 자아비하정도 등 3가지의 하위요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 분석을 실시하

였다.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여 후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자아존중감 평균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 크기는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전에는 자아존중감 평균이 32.31 이었으나,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는 37.66으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원예프로그램 참여 후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사전 사후 평균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 분석한 결과,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표 6> 참조). 따라서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여 이후의 자아존중감($t=6.061/p<.001$)이 증가한다.” 로 설정된 [귀무가설 3]는 수용(accept)되어 진다. 즉,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자아존중감이 증가한다.” 는 것으로 가설검증을 결론지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표 6> 자아존중감 대응표본 T-검정 (통계량 및 분석결과)

구 분 (통계량)		Mean	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자아존중감	사전	32.31	32	6.513	1.151			
	사후	37.66	32	4.455	.788			
구 분 (분석결과)	Paired Differences				t	df	p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자아존중감_사전	-5.344	4.988	.882	-7.142	-3.545	-6.061***	31	.000
자아존중감_사후								

*p<.05, **p<.01, ***p<.001

한편, 원예활동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의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집단별 자아존중감을 자아만족정도, 자아인지정도, 자아비하정도 등 3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전사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을 하위 영역별 크기를 살펴보면,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전에는 자아만족정도의 평균값이 15.84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는 18.50로 자아만족정도 측면의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자아인지정도는 평균값이 10.44 이었으나,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는 11.59로 자아인지정도 측면의 평균값이 증가하게 된다. 자아비하정도는 평균값이 6.03 이었으나,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는 7.56으로 자아비하정도의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원예프로그램 참여 후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을 자아만족정도, 자아인지정도, 자아비하정도 등 3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전사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원예프로그램을 참여한 이전과 이후에 자아만족정도, 자아인지정도, 자아비하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7〉 참조). 따라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소인 자아만족정도($t=-4.712/p<.001$), 자아인지정도($t=-2.991/p<.001$), 자아비하정도($t=-5.327 /p<.001$)를 모두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자아존중감 하위요인별 대응표본 T-검정 (통계량 및 분석결과)

구 분 (통계량)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자아만족 정도	사전	15.84	32	3.717	.657			
	사후	18.50	32	2.502	.442			
자아인지 정도	사전	10.44	32	2.382	.421			
	사후	11.59	32	2.061	.364			
자아비하 정도	사전	6.03	32	2.102	.372			
	사후	7.56	32	1.625	.287			
구 분 (분석결과)	대응차					t	자유 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아만족 정도	-2.656	3.189	.564	-3.806	-1.507	-4.712***	31	.000
자아인지 정도	-1.156	2.187	.387	-1.945	-.368	-2.991**	31	.005
자아비하 정도	-1.531	1.626	.287	-2.118	-.945	-5.327***	31	.000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그들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청각장애 노인시설 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원예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그들의 우울감 감소와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노인복지 현장에서의 실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노인복지 기관의 정책 결정자와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 원예활동은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등 다른 심리치료 프로그램보다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본질적으로 접근성 유인이 용이하고, 생명과의 교제 차원에서 흥미 유발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둘째,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소통과 통합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성 회복과 사회통합의 프로그램으로 활용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청각장애노인들은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로 노인복지기관들의 대부분 프로그램은 일반 활동 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중심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와 신체적 노령화 등 이중적 고통을 겪는 청각장애노인들의 외부와 소통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체계적인 원예활동 커리큘럼 개발과 안정적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전담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 임상적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들은 단기적인 실행으로 그 효과성을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정규적인 커리큘럼화를 위하여 장기적 관점과 시설과 기관 차원의 적절한 예산 배정이 요구된다.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비록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고비용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기에는 경비부담감이 크므로, 재료의 구입 및 진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 투입과 복지원예사와 같은 전문가 및 담당자 등의 배정이 요구된다.

넷째, 보다 정형화된 원예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노인복지 현장의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기존의 의료적 측면의 원예활동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본격적인 원예복지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학제화 과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경우, 구체적 접근으로 원예활동 프로그램 계획 시 표본집단 그룹의 조직과 크기 등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실시하여 노인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 척도에 미치는 역동적 변화를 측정하는 현장 기반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일선 노인복지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원예활동은 클라이언트, 원예 식물, 프로그램, 원예치료사 등 4가지 구성 요소로 진행되는 만큼, 전문적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정책적 차원의 원예치료사의 양성을 위한 법률적 장치가 요구된다. 원예복지 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원예에 관한 조예와 전문성이 결합될 때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원예치료사는 복지적 관점보다는 의료적, 재활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복지적 마인드와 전문성을 구비한 명실상부한 국가자격 기준의 복지원예사³⁾의 양성이 필

3) 우리나라 원예치료사 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자격제도가 아닌 민간자격 제도이다. 2008년 국내 처음으로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에서 민간자격 등록을 실시하였다. 원예치료사의 자격 명

요하다. 또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표준 텍스트 개발과 원예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들과의 상호소통체계 구성, 범용화를 위한 체계적인 보급대책이 요구된다. 원예활동을 위한 시설 내 공간 구성 지원, 기본 재료 구입 지원, 프로그램 진행 지원 등 적절한 소요 예산 충족을 위한 지침과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연수 교육 등 원예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무엇보다 실증연구 방법상의 한계일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청각장애 전문 이용시설인 주간보호센터와 수도권 소재 한국농아인협회 주간보호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저소득층 청각장애노인의 사례에서는 동일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대응표본 T-검정 분석을 위한 변수가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이존중감 등으로 한정 되어져, 변수들 상호 간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질적연구 방법론상의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의 원예활동이 우울감 감소, 생활만족도 및 자이존중감 증대에 효과성을 입증하고 성공적인 노인복지의 실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실천적인 노인복지의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하나·박우권(2015).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시설 치매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대한고령친화 산업학회지**, 7(2), 13-20.
- 김희성·이은희(2003). 명상을 적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모형이 치매노인의 우울, 무력감 및 뇌파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지**, 3(2), 10-101.
- 박근수·황대욱(2010). 원예활동여가 프로그램이 농촌노인의 정신건강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5(5), 333-348.
- 송미진(2009). **원예치료가 우울증 환자의 정서와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창섭·정원길(2009). 노인의 자이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노화정도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19(2), 1-26.

칭은 수차례 변화되었는데, 최초 원예치료사로 출발하였으나 중간에 원예치료사와 원예복지사로 구분되었다. 이후 2013년부터 복지원예사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등급은 복지원에 슈퍼바이저, 복지원예사 1급~3급으로 구분된다(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2019).

- 이소윤(2020). **원예활동이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증, 생활만족도, 자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진(2008). **원예활동이 청각장애인의 자존감 및 심리,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2004). **여가로서 그룹 원예활동이 독거여성노인의 고독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김서원(2005). 저소득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29(1), 285-308.
- 이효재 외(1979). 한국 저소득층 노인생활에 관한 사회, 경제 및 공간문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4, 239-288.
- 임홍수(2017). 저소득층 노인의 우울증 해소를 위한 원예치료프로그램의 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6(1), 265-282.
- 임홍수·박승춘(2016). 원예치료가 청각장애 노인의 우울감 감소 및 자이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집**, 10(4), 225-235.
- 정선희·허무룡·이병호·박승춘. (2006). 원예치료가 노인성 질환자들의 자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물신경학회지**」. 9(4): 79-87.
- 정재은·이광우·심우경(2001). 노인의 원예활동치료에 따른 여가 및 생활 만족도의 관계. **한국인물신경학회지**, 4(1), 23-24.
- 정효영(2009). **REBT를 적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우울과 자이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원논총**, 42, 223-257.
-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옥(2002). **원예치료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치매노인의 사회적응력 강화 전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찬구(1988). **아동학대와 자이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가건강정보포털 홈페이지 - <https://health.cdc.go.kr>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 통계청(2019). **장애인구 특별추계 보도자료**.
- Cavan, R. S., Burgess, E. W., Havighurst, R. J., & Goldhamer, H. (1949). *Personal Adjustment in Old Age*.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Cumming, E., & Henry, W. (1961). *Growing Old: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ew York: Basic Books.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William, J.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MA: Harvard University Press.

[토론문]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의 정서심리와 원예치료」에 대한 토론

박범기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1.

본 논문의 대상인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유는 본 글에 대한 저자들도 밝혔듯 고령에 청각장애까지 가진 준 이중장애에 해당하는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적 관점에서 늘 이슈일 수 밖에 없는 빈곤문제까지 가진 대상을 다루었습니다. 복지적 관점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장애까지 포함된 주제의식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을 다룬 본 연구는 의미가 상당하다 봅니다.

2.

본 논문의 주제가 다루는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도 좋은 변수 선택이라 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OECD 국가 중 거의 15년간 노인자살률 1위인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들의 자살과 관련된 심리·정서적 주요 요인인 우울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연구는 가치가 있다 봅니다. 물론 노인 연구와 관련해 이 변수들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상당 수 있지만, 저소득층 청각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원예활동을 통해 이 변수들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시사성과 연구가치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본 연구의 초록부터 결론 및 시사점을 훑어보면 수정할 부분이 보입니다.

1) 우선 초록에서 수정할 부분입니다. 초록은 10줄 내외로 요약, 서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논문의

취지, 방법, 결론, 함의 순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방법을 초록에서 서술하실 때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시고 바로 자료분석방법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제언, 즉 함의부분을 서술하시는 것도 좀 더 압축적으로 간략하게 기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노인시설 주간보호센터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초록에서도 S시와 G도라고 하지 말고 서울시와 경기도라고 서술하시면 됩니다. 전체 논문을 읽어본 결과 분석방법은 대응표본 t-검정만 사용했을 뿐, 독립표본 t검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고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서론에서는 문장의 호응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 가령 청각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보다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경험하는 경우에 대한 선행연구나 객관적 통계자료를 동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3) 이론적 배경에서도 노인의 우울감, 생활만족도의 원인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나 출처를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 배경 중 저소득층 노인의 원예활동과 선행연구 검토는 객관적 근거를 잘 밝혀주셨고, 글의 구조도 논리적으로 서술된 것 같습니다.
- 4)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에서 표본 수나 대응표본 t-검정 등을 사용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납득시켰습니다. 그러나 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게슈탈트의 그룹 활동을 기반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서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각주에 게슈탈트의 개념, 특성 등에 대해서만 서술했을 뿐입니다. 연구모형의 척도서술에서 본 연구자가 사용한 척도문항에 대해 몇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고 점수가 클수록 어떠하다 등의 기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결과가 평균차이검정이기 때문에 점수의 의미에 대해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5) 분석결과에서 연구자들은 가령 가설1-3까지 서술하시면서 귀무가설을 수용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예치료가 우울감, 사회만족도,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다란 결과이기 때문에 귀무가설, 즉 영가설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대립가설을 수용했다 혹은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 6) 결론 및 시사점은 프로그램과 정책적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고 봅니다. 단 연구의 한계점을 서술하시면서 질적연구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노인들에 대한 질적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현상학,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등의 질적연구는 대상자의 인식이나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후속 연구로서의 질적연구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4.

토론의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과 주제는 의미성이 상당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흐름과 구성도 논리적이고 방법론상으로도 설득력 있게 서술되었다고 봅니다. 연구자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스웨덴 여성영화인 인권제도에 관한 연구

홍세영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교수)

스웨덴 여성영화인 인권제도에 관한 연구

홍세영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교수)

1

I.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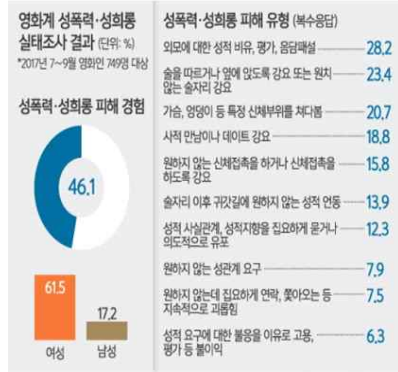
- #METoo(나도 당했다)
- 2017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된 해시태그 운동
- 한국사회에 은폐된 불평등한 젠더적 권력구조를 가시화해 준 사건



2

한국 여성영화인 인권실태

-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조건이나 주요 업무에 남성에게 유리하게 구조화되어 있음.
- 여성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3

한국미투운동의 한계

- 한국의 #METOO 운동은 사회적 이슈로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아시아국가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회적 담론으로 구성되었다는 데 의의는 있음.
- 그러나 일시적이고 법안이나 정책 등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4

스웨덴 미투운동

- 미투운동은 전국 여성조직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한국과 스웨덴은 같은 현상을 두고 다른 결과를 달랐음. 즉 한국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지만 여성의 인권제도의 확대를 가져오지 못했음. 반면 스웨덴은 사회적 관심을 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5

Ⅱ. 이론적 논의

: 권력자원과 성주류화 전략

6

권력자원론 (Power Resource Theory)

- 복지국가 형성을 설명해주는 주요 이론 중에 하나.
- 권력을 어떤 권력을 어떻게 얼마나 소지하느냐가 복지국가 형성과 계급간의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 권력자원의 종류 :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
- 권력자원은 사회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추동력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두 계급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얼마나 소지했느냐이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서로 상이한 자원을 소지하고 있다. 자본가는 경제적 힘으로 자본을 소지함으로써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다. 반면 노동자는 정치적 힘으로 선거, 좌파정당의 힘, 노동조합의 친밀성.

7

가부장적 복지국가

- 가부장적 복지국가 : 기존의 복지체제는 남성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으며 젠더 불평등을 양산하는 수단임.
- 시민 :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시민은 건강하고 정규직 백인 남성. 여성, 이주민, 장애인 배제 .
- 복지의 이원화와 젠더 불평등 : 남성은 사회보험제도로 여성은 공공부조에 주요 대상임. 여성은 가정주부로 노동자인 남성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남성은 완전한 시민권자 여성은 불완전한 시민권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
- 복지국가가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가부장적 역할을 전환시켰으며, 젠더 위계구조와 불평등을 양산.
- 여기의 주요 원인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권력이라는 점.

8

여성의 권력자원

- 여성의 권력자원은 복지국가를 수정할 수 있는 주요 수단임.
- 여성의 경제적 세력화 : 노동시장 참여.
-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
- 국가 페미니즘: 정부나 국가 기관, 정당으로 진입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 즉 국가 페미니즘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여성운동이 국가기관으로 진출하여 제도화된 권력을 형성하는 것.

9

성주류화 전략

-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는 오늘날 양성평등 정책의 토대가 되는 패러다임.
- 1985년 나이로비 유엔 3차 여성대회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95년 북경에서 열린 UN 제 4차 여성대회에서 여성정책의 핵심 이론으로 채택.
- 성주류에서 성(Gender)란 여성과 남성을 의미하고 주류화란 주류가 아닌 사람이나 사상을 주류로 만드는 것을 의미.
- 성주류화 전략은 여성 불평등을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였으며 사회의 모든 제도와 수준에 내재되어 있음을 주목하면서 모든 단계의 모든 정책에 성평등 시각을 투여해야 한다는 것.

10

- 사회는 다층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하고는 가부장적 규범과 제도, 조직, 구조적 질서 등을 가지고 있음.
- 이런 제도를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권력관계 맥락에서 이해할 것을 촉구하는 것.
- 따라서 성주류화란 여성정책을 뛰어 넘어 일반 정책까지도 성차별적이고 기존의 제도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음.

11

성주류화와 제도

- 국제연합경제이사회(ECOSOC)는 1997년 성주류화를 법률, 정책, 프로그램과 같은 계획된 행동에 모든 수준과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함의(implication)를 조사(assessment)하는 과정.
- 성주류화는 전략으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집행되고 평가 등이 통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 성주류화 전략에서 양성평등은 최고의 목표이자 장기적 전략으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과정을 요구.
- 성주류화는 국가 공공 과 민간 조직영역, 중앙과 지방 정책, 서비스와 영역별 프로그램 등 양성평등을 통합시키는 것. 결국 이를 통해 차별적 사회제도, 법, 문화적 가치 등을 전환하는 것.

12

성주류화전략의 핵심 도구

- 성별분리통계(gender-disaggregated statistics) : 불평등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의 목적. 남녀 불평등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
-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 법령, 계획 사업등 저율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특정한 욕구가 잘 반영되었는지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남녀의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젠더관계를 밝히는 것.
- 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 : 예산 편성과정 중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13

Ⅲ. 연구방법

14

연구문제

- 첫째, 스웨덴 여성의 권력자원의 형성과정은 무엇인가?
- 둘째, 스웨덴 여성영화종사자의 권력자원 형성과정은 무엇인가?
- 셋째, 스웨덴 성주류화 전략은 무엇인가?
- 넷째, 스웨덴 여성영화종사자를 위한 성주류화 전략은 무엇인가?

연구모형

15

IV. 결과분석

16

스웨덴 여성의 권력자원 형성과정

- 스웨덴 여성은 1919년 참정권을 획득.
- 1920년대 법적으로 결혼법(Marriage Code)에서 동등한 권리를 획득.
- 이후 여성은 공무원(civil servant)이 될 수 있었으며, 인문계 고등교육(Grammar School)의 입학이 허용.

17

여성의 경제적 세력화

- 산업화 여성들에게 많은 직업의 기회를 제공 → 경제적 세력화.
- 2차래의 세계대전 :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을 요구 받았음. 당시 많은 여성들은 그들의 책임이 가정과 직장 둘로 분리.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모기지 대출이나 주택수당 등 적극적 가족정책을 마련하는 배경을 만들어 주었음.
- 1950년대 이 시기 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이미지는 가정주부로 이상화 되었지만 미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의 욕구는 상승하고 있었음.
- 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을 갖는 비율이 상승.
- 1960년대 스웨덴 사회에서 여성 노동은 필요했고 가정주부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는 의문시되기 시작. 성별역할에 대한 연구가 면밀히 수행되었고 결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학습되고 이들의 기대는 만들어진다는 논의로 모아졌음. 여성조직들은 동등한 급여, 주간보호 등을 요구.

18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

- 1960년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차이에 대해 인식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여성운동을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당시 양성평등(jämställdhet)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으며 1972년 올로프 팔메(Olof Pamne)는 공식적 연설에서 정부정책의 모든 공식적 영역에 양성평등을 제도화할 것을 약속하였음.
- 1960~70년대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가치, 권리, 의무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되었으며,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담론화되었다. 개별세가 도입되었으며 아동양육은 사회와 가족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면서 사회적 아동돌봄체계를 확대.

19

- 1980년대 평등 옴부즈만(Equality Ombudsman)이 설립. 이 기구는 편향적이고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방지해주는 것이 주요 목적임. 직장여성들은 성차별 금지를 보장받았으며 고용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평등하게 처우해야 할 것을 요구 받고 있음.
- 젠더 평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수행. 1990년대 논의의 초점은 권력과 여성 직업의 재가치화, 여성의 대표성에 관해서였음. 젠더 연구가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됨.
- 미디어에서 여성의 성차별화(sexualization)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으며 강간과 차별에 대한 법이 강화.
- 2000년대 권력과 미디어의 성차별화(sexualization)이 주요 이슈가 되었음.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주요 이슈였다. 개별화된 부모 급여, 급여에 관한 노력, 작업장에 대한 엄격한 요구 등 도 주요 이슈가 되었음(Wahl, 2017).

20

- 1990년대 페미니스트 담론은 기존의 양성평등을 여성의 노동권에 초점을 두었다면 권력과 책임으로 옮겨감.
- 스웨덴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jämställdhet)는 일반적으로 평등(jämlikhet)과 다르다는 것에 주목후자는 계급의 차이로 권력과 분배 정의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 전자는 그 의미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
- 이러한 정치적 담론은 성평등 전략에서 1990년대 성주류화 전략으로 전환. 공식적으로 스웨덴은 1994년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 이는 국제적으로 1995년 UN 베이징 인권대회와 1999년 EU에서 채택한 시기보다 앞섰음.
- 보다 스웨덴 정부는 모든 정부기관의 모든 영역에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하도록 하였음.
- 정책 수립에 있어 성주류화는 모든 정부위원회와 조사(inquiries)가 그들의 제안에 성평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모든 공공 통계가 성별 분리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법적인 사안을 마련.

21

- 스웨덴에서 1994년부터 성주류화 전략을 수행하면서 2002년 예산 과정에 성주류화를 도입하였으며 성인지 통계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음.
- 2006년 의회의 양성평등 개혁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책임, 기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사회와 자신의 사람을 구성하는데 동등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전환.
- 2014년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자신들 스스로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선언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22

- ### 여성 영화 종사의 정치적 세력화 과정
- MeToo : 스웨덴 여성 계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음.
 - 스웨덴도 80개 이상의 여성 조직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왔으며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들어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 중요한 점은 여기의 출발점이 바로 영화산업의 종사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여배우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영화 미디어 산업 계에 은폐된 성적 불평등을 드러내었음.
 - 여배우들은 "Tystnad Tagning(침묵 행동)"의 구호아래 극장과 영화 산업의 전문분야에 있는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음. 이는 오페라, 요식업, 공장, 보건 케어 전문가,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퍼져 나갔음.
 - 결론은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함.

23

스웨덴 페미니스트 정부

- 2014년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공식적으로 페미니스트 정부로 표명. 세계 최초의 페미니스트 정부.
- 정부가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 권력자원적 시각 : 공적인 영역에서 남녀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재 정부는 스웨덴 양성 평등 정책의 목표를 남성과 여성이 사회와 자신의 삶 속에 동등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
- 스웨덴 정부는 정책 아젠다를 통해 불평등, 억압적 불평등한 성역할과 구조를 개혁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현 정부는 양성평등은 모든 의사결정과 자원 할당에 중심에 두기로 하였음.
- 스웨덴 정부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젠더(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하였음. 전대 주류화 전략은 유럽의회에서 정의한 것으로 정책 입안과정과 관련하여 모든 정책 영역, 모든 수준, 모든 단계, 양성평등 관점을 내포하는 것.

24

스웨덴 페미니스트 정부의 젠더 평등 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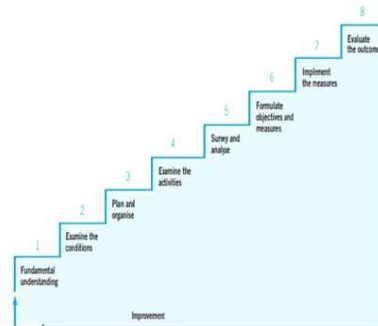
목표	내용
권력과 영향력의 동등한 배분	여성과 남성은 적극적 시민으로서 의사결정 조건을 구성하는데 동등한 기회와 권리가 있음.
경제적 평등	여성과 남성은 경제적으로 독립적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유급노동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가져야 함
평등한 교육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은 교육, 연구, 개인적 개발과 관련하여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가져야 함.
평등한 건강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은 좋은 건강을 위한 평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평등하게 돌봄을 제공받아야 함.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방지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은 신체적 통합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있음.
무급 가사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돌봄	여성과 남성은 가사 노동에 대한 동등한 책임이 있으며, 평등하게 돌봄을 주고받아야 함

25

성주류화 지원 위원회

(JämStöd, Gender Mainstreaming Support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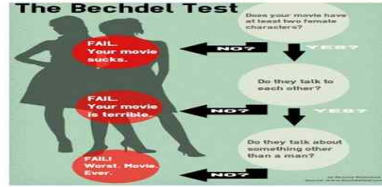
- 성주류화 매뉴얼 발행
- 사다리 모델(Ladder Model)
- 성주류화 과정의 모든 단계를 점검하고, 조직 속에 수행된 업무들과 요구된 것들을 살피고, 과정의 다양한 단계 속에 방법들을 모색하고,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인식과 조직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공통된 관점을 모으는 것.



26

성별 영향 평가 : 벡델 테스트 (Bechdel Test)

- 1985년 미국의 만화가 알리스 벡델 (Alison Bechdel)이 자신의 만화 "Dykes to Watch Out For"를 통해 개념을 소개한 것
- 벡델테스트는 30여년 이상 영화 속의 성별영향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에서 적극적으로
- 평가 기준은 다음 질문임
- '두 명 이상의 여성이름을 가진 배우가 등장하는가?', '그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는가?', '남자 이외의 다른 화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가?'



27

성인지 예산 :

스웨덴 영화 협정(Sweden's Film Agreement)과 여성할당제

- 여성 영화제작자는 1975년 조직화하였으며, 젠더평등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1999년에 이르러서야 젠더 평등을 처음으로 언급.
- 할당제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동등한 대표 (equal representation)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카메라 뒤에 있는 여성들이 영화산업에서 여성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화산업 속에 여성의 증가는 스크린 상에 다각적인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목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
- 2006년 협정에서 한 문구에서 각 성은 적어도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등 영화의 핵심적 지위에 40%이상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서술. 이 문구는 2013년 약간 수정되어 지금은 여성과 남성 사이 동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변경. 젠더 평등은 위원회의 교육에 양성 평등을 추가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었음. 주목할 만한 것은 시장지위와 대조적으로 위원회의 지지는 품질 평가와 관련된 체계라는 점.

28

성인지 통계

- 스웨덴 공식 통계 시행령 제 14조(Section 14 of Official Statistics Ordinance, 2001:100)에 따르면 성별분리 통계, 1994년부터 개입과 관련된 공식적 통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별로 분리되어야 하고 규정. 또한 이는 정부 차원에서 통계의 품질과 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여러 기관에서 현재 성별 분리 통계 작업은 필수 조건임.
- 스웨덴 통계(Statistics Sweden)은 성별분리 자료 생산을 위한 특수한 단위(unit)를 가지고 있음.
- 국가 젠더 통계는 인구, 보건, 사회돌봄, 교육 연구, 시간 사용, 부모보험, 무급노동, 소득 발생 고용, 임금, 소득, 영향력과 권력, 범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음.
- 각 지표에는 젠더평등 목표의 6개가 설정되어 있음.
- 국가적 수준에서의 성별 분리 통계를 172개의 표를 제시.
- 스웨덴 통계청은 격년으로 "스웨덴 여성과 남성, 사실과 특징"을 발행하여 양성 평등 개발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지방적(regional), 지역적(local)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임.

29

V. 끝내면서

30

결론

- 스웨덴은 여성의 권력자원이 제도화된 상태임. 여성의 조직화는 높은 편임.
- 여성영화 종사자의 인권도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됨.
- 그 핵심 전략으로 성주류화 전략이 있음: 스웨덴 여성영화산업 종사자는 성주류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영화산업 계에 양성평등 정도를 높이려고 함.
- 벡델테스트: 영화속에 여성의 관점 투여.
- 성인지 예산: 50:50 할당제를 통해 여성 감독이나 제작자 증가, 여성 영화종사자들의 적극적 참여.
- 성인지 통계: 구조적 차별을 가시화시켜 줌.

31

시사점

- Soft Power : 가치나 정체성, 한국 여성들을 하나로 뭉쳐줄 구심점이 요구됨. 한국 여성들이 진정한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함.
- 실질적인 성주류화 전략 : 한국의 성주류화는 명목적이고 형식수준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가 없음. 실현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해야 함.
- 국가 페니미즘 :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도를 높여 여성의 권력자원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32

[토론문]

「스웨덴 여성영화인 인권제도」에 대한 토론

이화선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스웨덴은 양성평등을 비롯하여 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복지국가 논쟁에 있어서도 이상적인 한 모델로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스웨덴에서 여성영화인의 인권 제도를 다룬 홍세영 교수님의 연구는 스웨덴에서 여성인권 제도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과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양성평등과 그 전략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2017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미투운동’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과 불평등한 젠더적 권력구조를 드러내며 피해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본인의 피해 사실을 사건이 발생한 당시나 그 이후에나 선뜻 밝히지 못하는데, 이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불편한 사회적 시선,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각 계각층의 성폭력 피해 고발로 시작된 한국사회 미투운동은 법조계 인사, 시인, 작가, 배우, 감독 등의 성폭력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홍세영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의 사회적 관심이 컸던 것과는 달리, 한국 미투운동은 법안이나 정책 등의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미투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정도 시들어진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와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불편함으로 남아 있는 시점에, 홍세영 교수님의 연구는 학자의 사그라지지 않는 연구 의지를 잘 보여주기에 의미가 깊다고 본다. 한국사회 미투운동은 왜 일시적으로 현상으로 그쳤을까? 왜 스웨덴처럼 제도화되지 못하였을까? 홍세영 교수님은 이렇듯 불편한 질문들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스웨덴 여성영화인 인권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본다.

‘미투’에 관한 운동이 제도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인 권력과 정책이 근간이 되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스웨덴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세력화와 페미니스트 정부, 성주류화 전략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성 불평등적 구조에 주목하고 모든 정책에 걸쳐 성평등적인 시각이 반영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이 연구는 특히 여성영화인에 주목한다. 우리는 보통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광고와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매체에 노출된다. 대중매체에 반영된 성차별적인 문화에 대하여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며 어느덧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되는 것이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평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웨덴이 도입한 백텔 테스트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는 여성영화종사자의 인권과 영화 산업에서의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구성구석에 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2012년에 스웨덴이 최초로 도입한 백텔 테스트는 한국에서도 차츰 활용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한국 영화의 백텔 테스트 통과 비율은 약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홍세영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2014년 집권한 스웨덴의 사민당 정부는 스스로 페미니스트 정부로 표명하였다. 한국사회의 경우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한다. 스웨덴 정부가 했던 것처럼, 한국 정부의 페미니즘 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홍세영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이러한 연대를 실제로 진전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평소 공리하셨거나 검토하셨던 내용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2부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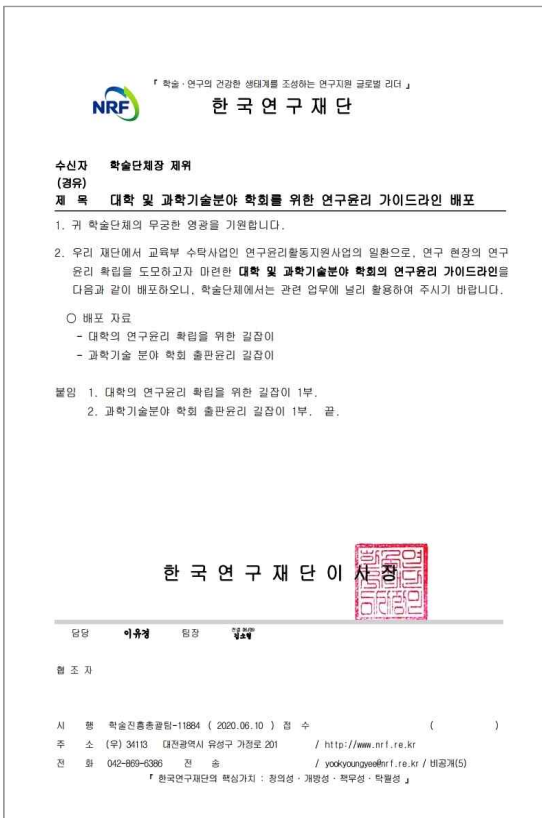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WORKSHOP)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하반기 학술대회(2020.12.4)

계층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1)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하반기 학술대회(2020.12.4)

계층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01	CHAPTER 머리말	
	1. 이 책의 목적	06
	2. 이 책의 구성	07
02	CHAPTER 연구윤리 지침의 목적과 정의	
	1. 지침의 목적 (제1조)	10
	2. 지침의 정의 (제2조)	11
	3. 적용 대상과 방법 (제3조)	16
	4. 지침 적용의 범위 (제4조)	18
03	CHAPTER 주체별 역할과 책임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22
	2. 대학의 역할과 책임 (제6조)	24
	3. 자체 규정의 확립 (제9조)	29
04	CHAPTER 연구부정행위 정의와 범위	
	1.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32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12조)	33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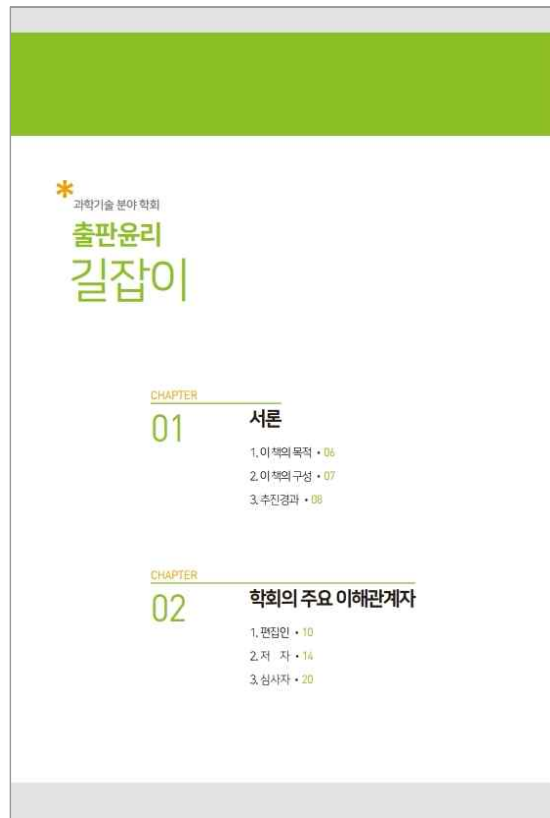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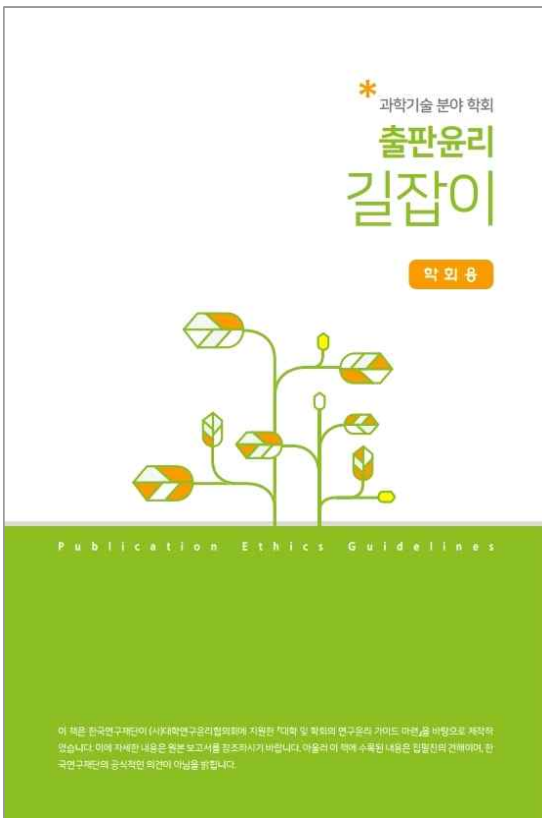
05	CHAPTER 연구부정행위 판단과 검증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제14조, 제15조)	46
	2. 검증주제와 검증기간 (제16조, 제27조)	51
	3.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57
	4. 검증절차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63
06	CHAPTER 연구부정행위 후속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80
	2. 조사결과와 보고 (제29조)	81
	3.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84
07	CHAPTER 연구윤리 지침의 영속성	
	1. 검증 시효 지침 적용의 시기 구분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90
08	CHAPTER 참고문헌	95
	부록	96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하반기 학술대회(2020.12.4)

계층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3)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하반기 학술대회(2020.12.4)

계층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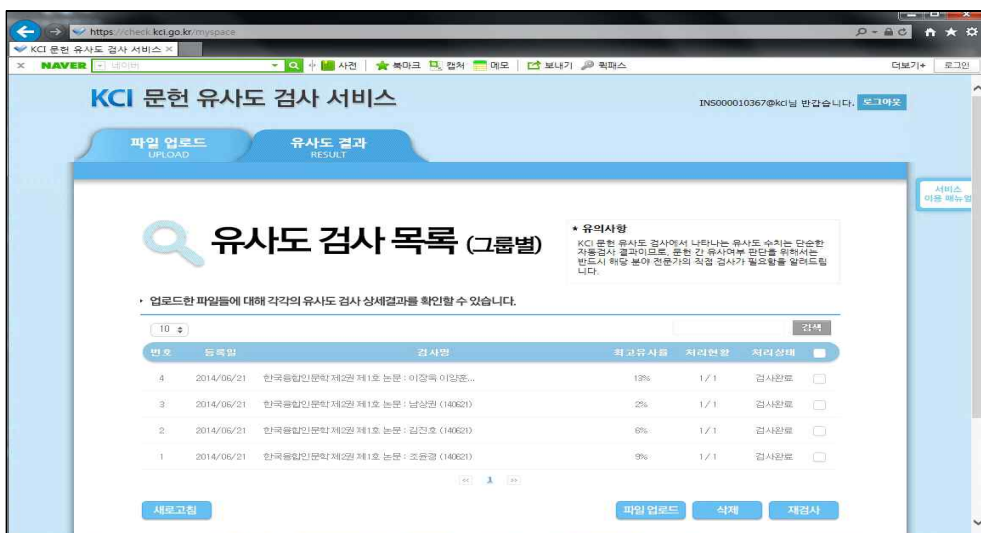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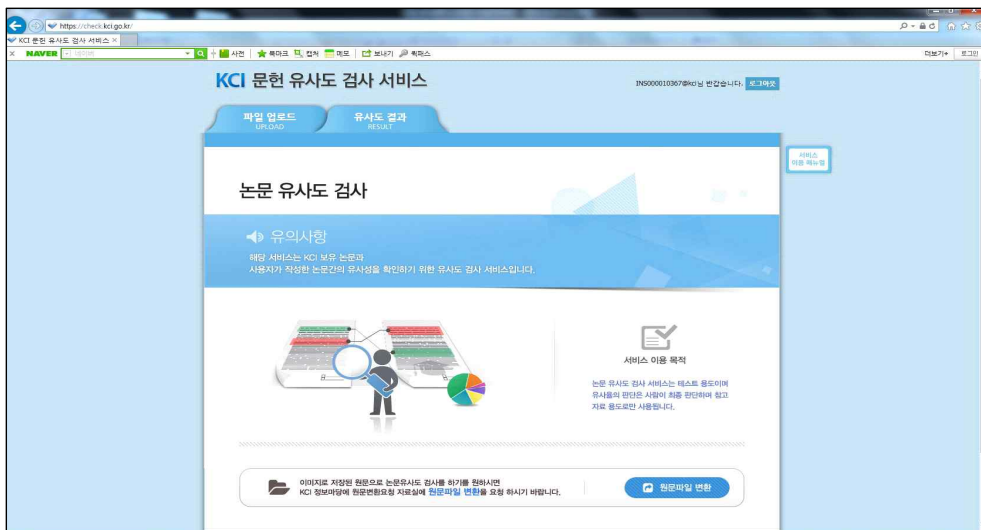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4)

CONTENTS	
CHAPTER	
03	윤리적 학술출판을 위한 권고사항
	1. 동료심사 • 26
	2. 이해상충 • 30
	3. 논문철회 • 32
	4. 저작권 보호 • 36
	5. 우리표명 • 36
	6. 독자통신 • 36
CHAPTER	
04	학회의 연구윤리 검증 관련 권고사항
	1.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예방 • 40
	2.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 43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후 제재 • 46
	4. 생명윤리 • 48
	5. 연구기관과 학회 간 협력 • 50
CHAPTER	
05	부록
	○학회의 출판 및 연구 윤리 규정(예시 규정) •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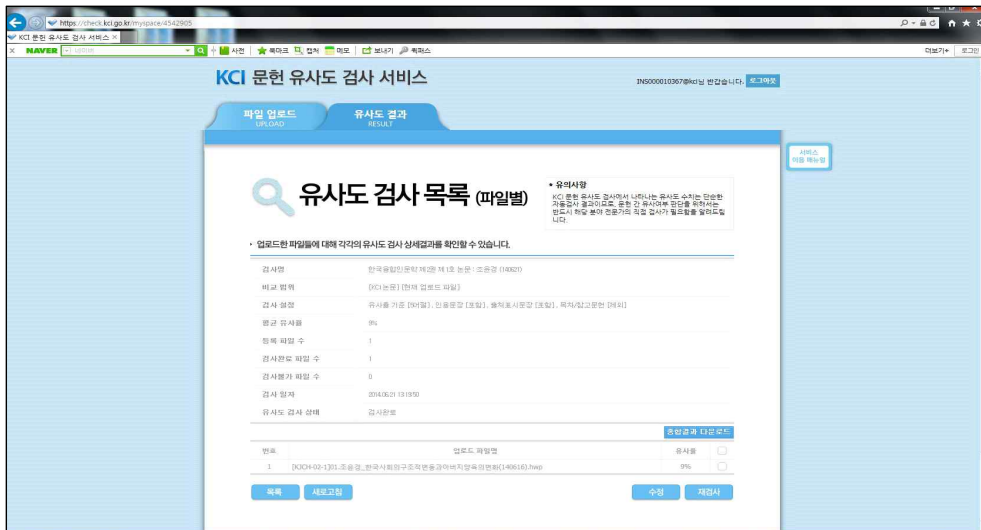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하반기 학술대회(2020.12.4)
 계층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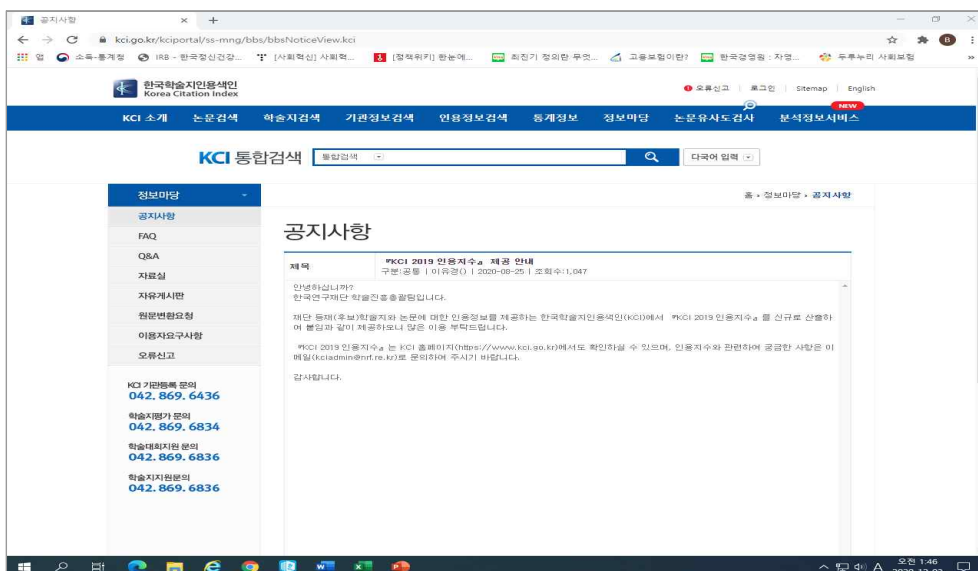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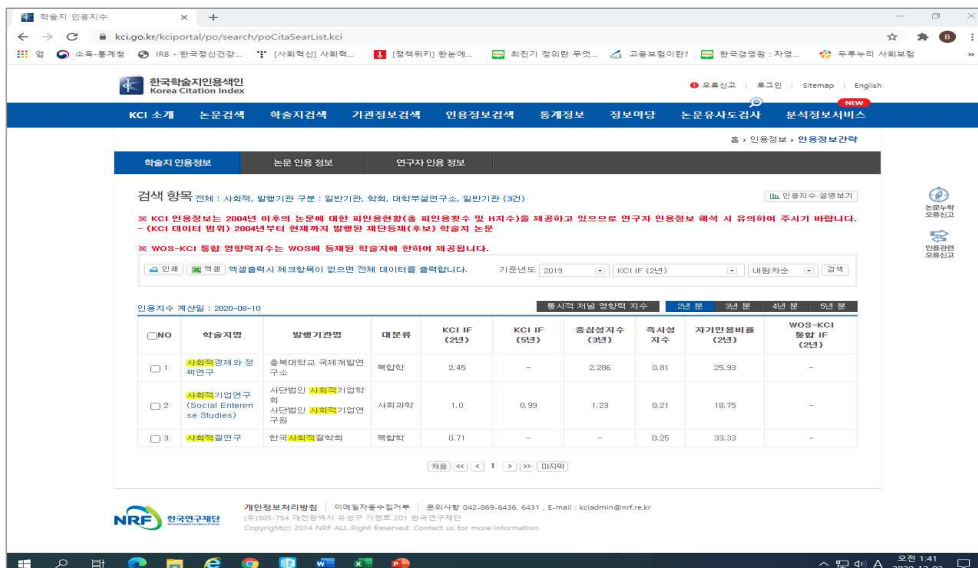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하반기 학술대회(2020.12.4)
 계층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하반기 학술대회(2020.12.4)
 계층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1)



한국사회적질학회 2020년 하반기 학술대회(2020.12.4)
 계층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질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2)

The screenshot shows the KCI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KCI 소개', '논문검색', '학술서평', '기관정보검색', '인용정보검색', '통계정보', '정보마당', '논문원서도입서', and '분석정보서비스'. The main search bar contains 'KCI 통합검색' and a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filters for '인용보고서' and '학술서 사회학질학연구' with 36 items. The dashboard displays several key metrics: '지자별 논문 수' (a pie chart), 'H-index' (2), '총 인용 횟수' (15), '평균 인용 횟수' (0.4), and '자기 인용 제외 인용 횟수' (9). There are also two line graphs: '연도별 논문 수' (2015-2020) and '연도별 인용 수' (2015-2020). At the bottom, there is a '논문 목록' section with three entries, each with a title, author, and citation count.

KCI 인용지수 설명

01.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특정기간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 횟수로 동일 분야 저널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

$$\text{영향력 지수 (IF)} = \frac{\text{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text{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ex) Journal "A"의 IF구하기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들이 2017년에 출판된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인용된 수 = 100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인용된 수 = 110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 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수 = 90 2016년 출판된 논문 수 = 95
계산	$\frac{100+110}{90+95} = \frac{210}{185} = 1.135$

02. KCI +WoS 통합 영향력 지수(KCI+WoS Impact Factor)

특정기간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국내 KCI와 국외 WoS(Web of Science) 논문에서 인용된 평균 횟수로서, 국내외적 인용도를 통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 (MOS **동재학술지에 한하여 제공**)

$$\text{KCI+WoS 영향력 지수 (IF)} = \frac{(\text{학술지의 논문이 KCI에서 인용된 총 횟수} + \text{WoS에서 인용된 총 횟수}) - (\text{KCI와 WoS 에서 중복하여 인용된 횟수})}{\text{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ex) Journal "A"의 KCI+WoS IF구하기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들이 2017년에 출판된 KCI 와 WoS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	2015년,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KCI 에서 인용된 수 = 90 2015년,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WoS 에서 인용된 수 = 30 KCI 논문이면서 동시에 WoS 논문에 중복 인용된 수 = 15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 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수 = 90 2016년 출판된 논문 수 = 95
계산	$\frac{90+30-15}{90+95} = \frac{105}{185} = 0.567$